

## 볼리비아 2014년 10월 대통령 선거 동향

김달관

볼리비아는 2014년 10월 12일에 대통령과 부통령, 하원의원, 상원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한다. 특히 이번 대통령 선거는 2009년 신헌법에 따라, 투표자 과반수를 획득하거나 최소득표가 40% 이상이면 2위와 격차가 10% 이상 차이가 날 때, 선거승리자가 확정된다. 만약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12월에 2차 결선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예전에는 대통령 선거에서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하면, 의회를 대표하는 정당의 합의를 거쳐 의회에서 의원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했다.

현재 여당인 사회주의운동당(Movimiento al Socialismo: MAS) 당의 에보 모랄레스가 2014년 대통령 후보로 선거에 출마했다. 야당으로는 국민연합당(Frente de Unidad Nacional: UN)의 도리아 메디나가 대선 후보로 출마했고 사회민주운동당(Movimiento Democrática Social) 당의 루벤 코스타스가 대선 후보로 출마했다. 또한 기독교민주당의 호르헤 키로가와 불굴의 운동당(Movimiento Sin Miedo: MSM)의 후안 델 그라나도 역시 출사표를 던졌다.

2012년 10월~2014년 2월 사이에 대선 후보자 지지율 조사에 따르면, 1위는 에보 모랄레스가 평균 42.5% 당선 가능성으로 나타났고, 2위는 도리아 메디나가 17.3%로 나타났다. 필자가 현지조사차 볼리비아 방문 시

기간	조사기관	조사결과
2012년 10~12월	Ipsos	1위 에보 모랄레스 45% 2위 도리아 메디나 14% 3위 루벤 코스타스 11% 4위 후안 델 그라나도 9%
2013년 4월	Aljazeera America	1위 에보 모랄레스 41% 2위 도리아 메디나 17%
2013년 4월	Captura Consulting	1위 에보 모랄레스 38.6% 2위 도리아 메디나 25% 3위 후안 델 그라나도 16.2%
2014년 2월	Pagina Siete	1위 에보 모랄레스 45.7% 2위 도리아 메디나 13.4% 3위 루벤 코스타스 9% 4위 후안 델 그라나도 4% 4위 호르헤 키로가 4%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 (출처: 필자)

(2014년 6월) 평범한 볼리비아 사람들에게 질문했을 때, 대부분은 에보 모랄레스가 당선 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현재까지 지지율 1위는 에보 모랄레스이다.

대통령 후보자의 면면을 살펴보면, 현재 여당의 지도자로서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에보 모랄레스는 2005년 대선에서 53.7%를 획득하여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2009년 신헌법에 따라 2009년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63.4%를 획득하여 대통령에 재선되었다. 2009년 신헌법에 따라 볼리비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3년 11월에 에보 모랄레스가 2014년 10월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발표했다.

현재 지지율 2위인 중도우파의 국민연합당 대통령후보 도리아 메디나는 1958년 라파스에서 출생했다. 재정부에서 통화신용정책 국장을 역임했고, 1992~1993년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이후에는 세계은행과 미주개발은행에서도 근무했다. 정치적으로는 2003년부터 국민연합당

순위	정당	하원	상원
1위	사회주의운동(MAS)	88명	26명
2위	볼리비아를 위한 진보계획 (Plan Progreso para Bolivia)	37명	10명
3위	국민연합(UN)	3명	-
4위	사회동맹(Alianza Social)	2명	-
총계		130명	36명

2009년 양원 선거결과 (출처: 필자)

을 창당하면서 총재로 활동했고 2005년과 2009년에 대선후보로 출마했으나 낙마했으며 2006년에는 제헌의회 의원으로도 활동했다. 현재는 에보 모랄레스와 MAS당에 대안적인 정치기획을 위해 야당을 규합하고 있다.

기독교민주당의 호르헤 키로가는 1960년 코차밤바에서 출생했다. 지금은 사라진 우파정당인 민주국민행동(ADN)당의 지도자로서 1997년에 37세로 부통령에 당선되었고, 2001년~2002년에는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볼리비아 대통령을 역임한 바 있다.

후안 델 그라나도는 우파정당인 좌파혁명운동당과 결별하면서 불굴의 운동당을 창설했고 현재 총재로 있다. 2006년 라파스 시장으로서 후안 델 그라나도는 초기 에보 모랄레스 정부와 동맹을 유지했으나 2010년 시장선거를 계기로 정치적 동맹관계를 파기했다.

사회민주당의 루벤 코스타스는 1955년 산타 크루스에서 출생했으며, 예전부터 지방자치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에보 모랄레스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현재 산타 크루스 주지사이다.

2014년 선거에서 상원의원과 하원의원도 선출하게 된다. 상원의원은 총 36명을 선출하고, 하원의원은 총 130명을 선출하는데, 그중에서 63명은 전국구에서 선출하고, 60명은 지역구에서 선출하며, 나머지 7명은 원주민선거구에서 선출하게 된다. 다음의 표는 2009년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의 선거결과인데, 이번 선거에서도 집권여당인 사회주의운동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무튼 에보 모랄레스는 2005년에 원주민과 농민 특히 코카 잎을 재배하는 노조의 지지로 인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후 2009년 신헌법을 통과시켰다. 2009년 신헌법은 볼리비아의 헌법사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했다. 핵심적인 것은 원주민의 문화적, 사회적 권리뿐만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권리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36개의 원주민을 국민으로 인정하면서 다종족(Pluri-étnico), 다문화(Pluri-cultural), 다국민(Pluri-nacional)적 특징을 인정했다. 특히 다국민은 원주민의 사법적 다원성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즉 원주민을 볼리비아 시민(Ciudadanía Boliviana)으로서 뿐만 아니라, 원주민으로서 시민(Ciudadanía Indígena)으로 인정하고 식민 시대부터 내려온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배제로부터 적극적으로 '역사적 정의'를 회복하려는 시대의 정신을 표명한다. 만약 2014년 대통령 선거와 양원 선거에서 에보 모랄레스와 사회주의운동당이 승리한다면, 그것은 예전처럼 인종주의에 기초하여 원주민을 배제하지 말고, 상호문화성에 기초하여 원주민을 인정하며, 온전한 국민으로 존중하면서 조화로운 공존을 모색하라는 의미일 것이다.

---

김달관 -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HK연구교수